

'디지털전환을 지역산업 성장 기회로!'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 디지털혁신 대토론회' 전문가 등 200여명 참석해 진행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간 융합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디지털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전환을 지역산업 성장의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현재와 미래, 정책 방향 등을 다룬 1부 주제발표와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부 전문가 토론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디지털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청년 인재와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디지털혁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반 산업혁신 가치생태계 창출'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혁신을 모색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화두로 향후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성주 교수를 좌장으로 소상공인·문화관광·금융·모빌리티·제조·디지털의 전주시 주요 산업 6개 분야의 디지털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개척 전략(소상공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관광의 미래(문화관광) △디지털 금융혁신 방안(금융) △모빌리티 기술과 전주시의 도심항공 제안(모빌리티) △지역 제조산업 디지털혁신 방안(제조) △지역 디지털 혁신 전략(디지털)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신기술들이 전주시 주요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전주청년회의소는 22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500만 원 상당의 인경을 전주시 에 기부했다.

'밝은 눈으로 사회 바라볼 수 있길'

서전주청년회의소, 전주시에 소외이웃 위한 안경 기부

서전주청년회의소(회장 서봉진)는 22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50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전주시에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안경은 전주시역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이웃 5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봉진 서전주청년회의소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서전주청년회의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우리의 이웃들이 밝은 눈과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서전주청년회의소의 따뜻한 기부와 나눔 활동에 감사드린다"면서 "시민들이 행복한 전주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전주청년회의소는 청년들의 리더십 등 개인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지원하는 국제민간단체로, 현재 70여 명의 회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 공로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8명 선정

6월 22일 '전주시민의 날' 행사서 시상식 진행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전주를 '천사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온 시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이 '2023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각계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2023년 전주시민

대상' 수상자 8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효행대상 황오숙씨(54, 여) △교육학술대상 오용기씨(73) △문화예술대상 김만순씨(71, 여) △산업·기술대상 임동욱씨(56) △사회봉사대상 윤국춘씨(55) △체육대상 박종운씨(73) △환경대상 김

반삼씨(80) △복지대상 전석진씨(65)이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고,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전주시민에게 귀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민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전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민대상은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

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며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贵宾으로 초청되는 등 수상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

전주시, '내가 시장이라면' 우수 아이디어 선정

전주시는 '내가 시장이라면, 000 하고싶다.'를 주제로 진행된 청원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10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시는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 13명의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의 블라인드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10건을 최종심사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19일 열린 최종심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이 직접 발표하고, 부시장과 실국장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들이 제안의 창의성과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등 심사기

준에 따라 평가해 최종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교통 신호 변경에 대한 운전자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차량용 키온트다운 신호등 설치, 환경 오염 저감을 통한 청정 전주 구현을 위한 전자현수막 활성화 등이다.

시는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중합정기장을 중심으로 전북대, (구)법원, 전라중학교 일원 창

의창작, 창업 밸리 조성, 한옥마을~아중호수 간 전기 셔틀버스 운행, 청사식당 예약을 통한 식재료 낭비방지로 탄소중립 실천방안,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고독사 방지시스템 구축 제안이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됐다"면서 "최종 선정된 6건뿐 아니라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뉴질랜드에 '한국 스타일' 널리 알려

전주 한옥 활용 오글랜드 한인회관 건축 자문·도서 기증식

전주시의회 공무원연수단이 지난 21일 뉴질랜드 오글랜드 한인회관에서 '오글랜드 한인회관 및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내 전주 한(韓)스타일 홍보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및 도서 기증식을 실시했다.

연수단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행정위원회 정성길 위원장 등 20여 명의 전주시의원과 전주시청 업무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송영진 단장의 주도로 결실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전주시는 전주 한옥을 구현한 오글랜드 한인회관 및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구축에 디자인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영진 단장은 "전주시와 오글랜드 한인회간 협력 체계 구축의 물꼬가 트였다"며 "향후 전주시 특산물의 뉴질랜드 수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와 도서 기증식에서는 정성길 행정위원장이 한국 도서 100권을 기증하며 "기증된 도서가 뉴질랜드 한인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오글랜드 재외동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전주가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단은 이달 29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전주시 홍보와 국제 협력 관계 구축 활동을 펼치며, 영화·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벤치마킹으로 전주시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제10회 전국 품바명인전

2023년 6월 2일 전주풍남문화광장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이주일

홍도

공범

서정우
국민MC

조대기수 - 진국이

서봉식